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정치 개혁은 사라졌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잠깐 주목받긴 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과 안철수 중 누가 당선 되느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되느냐?’ 그 이후 민주당은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것же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의원 모임은 ‘화해와 전진 포럼’ 이후 21년만이고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말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안을 만들고 3월에는 전원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열겠다”는 계획이다.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이 시한이다. 작년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정계 특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20여 개에 가까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강조점을 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며 적게는 3인에서 10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 유권자가 정당 추천 후보를 직접 선정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와 비례제의 비중을 1 대 1로

‘윤석열의 정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한 법안도 있다.

대안은 다양하고 상상력의 영역이다.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전국 단일 비례제를 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제를 연동형으로 하면서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와도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왜 선거제도를 개선하느냐인데,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가능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는 ‘제도적 친화력’인데 선거 제도가 다른 정치 제도(정부 형태나 대통령 선출 방식 등)는 물론 정치 문화나 관행과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아 시너지를 내야 한다.

후자가 중요하다. 중대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의 양당협외 정치’에서 ‘공유와 타협의 다당제 정치’를 향한 대안의 하나로 볼 수는 있다. 어떤 식으로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진 대통령 선거는 국회와 정치권에 ‘문제 해결의 다원주의 연합 정치’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국회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단은 ‘총리 추천제’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총리 선출제’까지 이룬다면 증오와 배제와 독점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의 선거제도 개혁에서 출발하여 대통령 결선투표가 더해지고 국회의 총리 추천에서 시작하여 국가원수의 직선 대통령과 원내 다수파 총리의 행정부 구성으로 완성되는 게 정치 개혁의 완결이다. 개혁은 정치 개혁의 공식적 완료다.

정치 개혁의 종합적 이해와 이에 따른 제도 설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리당락과 기득권의 포기’다.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현재 우리 정치권에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통령 선거 한 번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장식한다. 과거의 빛도 없고 미래의 정치적 부채도 없다. 공동체의 기여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의 언급이 개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도 아닌 듯하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승자 독식과 지역 대결 구도에 따른 양당 중심의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마감해야 한다는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시작으로 개혁으로 연결되는 정치 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윤석열의 권력과 정치’가 한국 정치에 남길 족적은 뚜렷하다. ‘정치 개혁의 대통령’이다.

‘나경원 사태’는 ‘어젠다 없는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준다.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 없는 권력과 정치는 실패한다.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불행이다. 시대정신과 역사적 책무의 인식이 출발점이다. ‘윤석열의 정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종교칼럼

개혁의 상두 소리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해 보이는 것이다.

세계의 대세를 통찰한 대종사는 독립의 만세 소리가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외침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혁의 외침으로 보시고 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하셨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의 원칙은 약소 민족들에게 독립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선언문의 서두에는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하기 위함이니 천명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공약 삼장에서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3·1독립 만세 운동은 단순한 민족 의식에 기초한 의거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양심의 발로이며 무자비 비폭력에 의한 평화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제의 온갖 수탈과 폭압에 대한 원한을 앙갚음하려 하지 않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 오직 비폭력으로 맞섰던 장엄한 순교 행위였고, 기독교·불교·천도교 등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33인의 사회 각계 지도자들과 전 국민의 합심 합력이 이루어낸 대동단

결의 민족적 거사였다.

3·1운동의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양심과 인권에 대한 선언이었다. 잘못된 제국주의, 강권주의, 침략주의로부터 민족 수권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양심의 선언이고 평화의 선언이었다. 둘째,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 일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정당한 주장만을 외치며 총칼 앞에 비폭력으로 맞선 순교 정신의 발현이었다. 셋째, 민족 대단결 운동이었다. 각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적 사명과 민족적 양심 앞에 하나로 뭉쳤을 뿐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 된 외침이었다.

앞에서 살펴 본 3·1운동의 정신은 정신이 주체가 되고 인도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했던 원불교 법인 정신과도 상통하는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달이면 3·1절을 맞는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3·1독립선언에서 선언한 진정한 나라의 독립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족 국가를 성취하고 있는가. 아직도 온전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동쪽끼리 서로 적대시하며 강대국들의 간섭을 자초하고 있는 형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독립이란,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란 자각과 분별과 단합과 힘 없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되고 대종사에서 말한 대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흑산공항 대신 수상 비행기는 어떨까

공항 건립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에 흑산도가 울릉도와 함께 선정되었다. 그러나 흑산공항의 건립은 울릉도와는 달리 흑산도의 거의 모든 영역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된 탓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의 경제성과 조류 서식지 파괴 논란 등으로 인해 환경부와 각종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흑산공항의 건립 문제가 오랜 기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흑산도 주민들 울릉도 공항의 건립을 찬성하는 측은 공항 건립은 외진 낙도인 탓에 연륙교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 주장한다. 더 나아가 공항 건립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의 훼손보다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 말한다. 반면 환경단체 측은 공항이 건립돼 환경이 훼손되면 흑산도의 아름다운 빛을 바랄 것이고 관광객 가치 역시 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게다가 흑산도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이다. 만약 항공기 운항 중 새와 충돌해 비행기의 고장을 부르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현상이 빈번할 것이라 우려한다.

흑산공항의 건립을 둘러싼 양 측의 의견은 일견 모두 타당한 구석이 있어 보인다. 확실히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은 철새 도래지 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들어진 공항이 오히려 관광객 감소를 부른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이다. 흑산도 주민들 중에는 어업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다. 또한 비행기 운항 중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주민들과 관광객 안전을 위협한다면, 차라리 공항은 만들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지금의 배편보다 빠르게 흑산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그 방법이 대규모 활주로 건설을 요하지 않는 수상 비행기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은 기존 선편에 비해 훨씬 빨리 섬에 갈 수 있으면서도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수반하지도 않는다.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 역시 바다 위에 착륙하는 수상 비행기의 특성상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보다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할 것이다. 물론 수상 비행기라고 해서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면 흑산도에 어떠한 항공편도 운항하지 않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세 차례 운항하는 초쾌속선 역시 하루 1회로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흑산 주민들의 삶의 편리를 도외시키는 일일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무시하는 환경 보전은 곧 파시즘과 다를 바 없으며 무분별한 개발만능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만 필자는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수상 비행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제안할 뿐이다. 흑산도 주민과 환경단체의 대립을 해결할 나름의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바랄 뿐이다.

社說

대학 지원 지자체 이양, 부실 떠넘기기 안 되게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조 원 규모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제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제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 대학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해 오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

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과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 동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빛쫓기’는 순서대로 말한다’는 속설처럼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될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앙정보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자체가 대학 발전보다 표심을 우선할 경우 지역 내 출세우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지방 대학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권한 이양을 핑계로 대학 균형 발전의 책임까지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MZ세대 파고드는 마약, 예방 관리 강화해야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사범 40% 이상이 10~20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지난해 하반기(8~12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3명을 검거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검거된 93명보다 53.7% 증가한 수치다. 광주경찰청은 이 기간에 마약 사범 세 명, 대마 사범 두 명,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38명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 또 전남경찰청은 마약 사범 14명, 대마 사범 14명,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72명 모두 100명을 붙잡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클럽 대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검거됐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클럽 운영자로부터 공급받은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주고 받으며 자택,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마약 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데다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 698명 가운데 43.9%인 307명이 10~20대였다.

우리나라는 유엔(UN)이 정한 마약정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해외 입국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약 밀거래 적발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아울러 수사 당국도 첨단 장비와 수사력을 보강해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 팬데믹이 드리운 사회 곳곳의 그늘이 가시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마스크는 벗었지만,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이들이 태반이다. 코로나 이후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3만 명이었던 나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65만 명, 2021년 68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선종환 베네딕도 16세 교황도 생전에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이 불면증이 교황직 자진 사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불면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수면의 질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임을 뜻하는 ‘불면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됐다.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어둠의 신 ‘레레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는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 중

우리의 귀에 가장 익숙한 자식 이름은 마블 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이다. 이 신의 형제가 잠의 신인 ‘히프노스’(Hypnos)인데, 이 신의 로마식 이름은 쉼누스(Somnus)이며 여기에서 부정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임을 뜻하는 ‘in’이 붙은 Insomnia(인섬니아), 즉 잠의 부정 형태인 불면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죽음과 잠의 신이 형제인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죽음을 영원한 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영어로 최면이라는 뜻의 ‘hypnosis’와 ‘수면제’라는 뜻의 ‘hypnotic’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잠의 신 히프노스에서 유래했으며, 97번째 포켓몬스터인 소위 최면 몬스터 ‘Hypno’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히프노스’라는 영국 명품 침대 브랜드도 있으며, 로마식 이름인 ‘쉼누스’라는 간판을 내건 호텔과 모텔이 국내 여러 곳에 있고, 쉼누스라는 상표명을 가진 수면 산소 캡슐도 있다. 불면증은 빠른 치료와 우선이며 평상시 규칙적인 생활과 낮잠 삼가기 등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기고



이성현
충남대 철학과 2학년

우리나라 사람이면 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도 흑산도라는 이름만은 그리 낯설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흑산도는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섬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도와 달리 흑산도에 가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현재 흑산도에는 공항이 없기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헬기를 통해 섬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흑산도에 가는 방법은 여객선이 유일하다. 그런데 흑산도는 천 개가 넘는 신안의 섬들 중에서도 만바다에 있기에 초쾌속선으로도 목포에서 두 시간이 걸릴 정도이다.

이렇듯 흑산도에 가는 일은 전국 각지에 있는 공항을 통해 한 시간이면 방문할 수 있는 제주도에 비해 훨씬 큰 부담이 된다. 물론 흑산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낙도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낙도 지역 소규모